



기후변화 대응 강원 지대별 적응 중만생종 벼 품종

배경 및 필요성

-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품종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
- 기후변화(생육·등숙기 기온상승)에 대응한 조생종 대체용 고품질 중만생종 품종 지역적응성 검토 필요

활용 내용

-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강원지역에서도 적응이 우수한 중만생종 품종을 재배 시 수량과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음
- 고품질 중만생종 재배시 수량 및 품질 비교('13~'15)

지대별	품종	수량(kg)		완전미율 (%)	효과
		백미	완전미		
평야지 (춘천)	조생종(오대벼)	508	425	84	완전미 수량 8% 증가 소득향상 : 100천원/10a
	대보,삼광(평균)	615	563	92	
동해안 (강릉)	조생종(오대벼)	505	409	81	완전미 수량 3% 증가 소득향상 : 30천원/10a
	대보,칠보(평균)	573	478	84	
중간지 (철원)	조생종(오대벼)	511	439	86	완전미 수량 4% 증가 소득향상 : 38천원/10a
	대보,하이아미(평균)	507	456	90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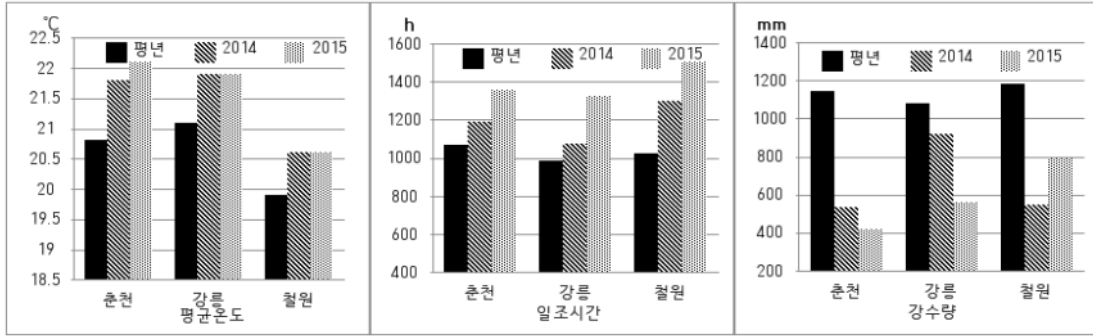
파급효과

- 고품질 벼(중만생종) 재배 시 완전미율 84~92%이상
- 완전미 생산성 향상으로 소득향상 효과(90~100천원/10a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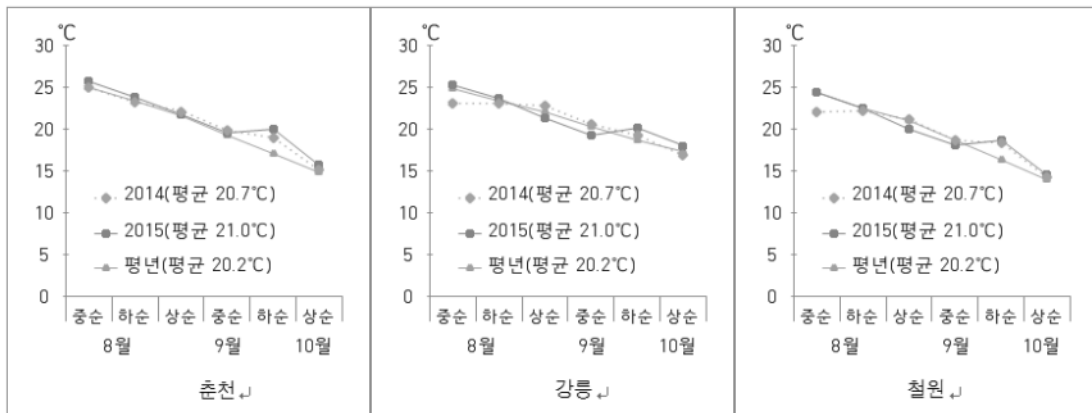
〈세부 연구결과〉

○ 벼 생육기간 기후변화 개황

- 평균온도 평년대비 각 지역별 1~1.6°C상승(5월~10월상순 기준)



- 등숙기 온도 상승 : 춘천 0.5~0.8°C ↑, 강릉 0~0.2°C ↑, 철원 0.2°C ↑



○ 지대별 수량 및 완전미율 비교



작물연구과

담당자 : 정정수, 조윤상, 함진관, 하건수, 고병대, 김성용
(033)248-6054, jung928@korea.kr